

청년운동본부

2018년 포럼 자료집

“한반도 평화, 청년의 온도” “결혼과 비혼 사이” “우리가 꿈꾸는 노동”



발행일 | 2018년 12월 14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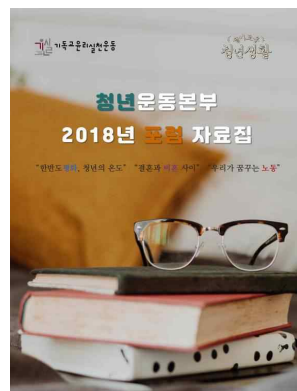
편 집 | 김현아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순서 및 목차

□ 한반도 평화, 청년의 온도

2018년 남북관계를 읽다. /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 - - - - 04쪽

청년 세대, 평화의 온도 / 정재훈 (기윤실 회원) - - - - - 07쪽

□ 결혼과 비혼 사이

한국 사회 비혼 동향과 정책 현황 ‘너희 비혼을 사하노라’ - - - - - 15쪽

/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교회에서 비혼을 말한다는 것 / 폴 짝 (믿는페미 활동가) - - - - - 26쪽

□ 우리가 꿈꾸는 노동

노동의 신학과 노동 윤리 ‘일에 대한 신학적 관점’ - - - - - 32쪽

/ 김동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청년 노동의 오늘과 내일 /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 - - - - 45쪽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포럼

[슬기로운 청년생활 1장]

“한반도 평화, 청년의 온도”

본 원고는 2018년 3월 27일 열린 청년포럼의 발제문을 엮은 것입니다.

2018년 남북관계를 읽다.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2017년 12월, 선교한국 기도회에서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냈다. 이때에는 기도제목을 내면서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긴가민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무섭게 들어주신다.

롬 12:18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는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이 통일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평화로 가는 수단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 신약의 명백한 말씀은 평화이지, 통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단방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전 세계 20개 국가 이상이 연방국가로 살아있고, 지구 상 가장 큰 연합체는 유럽이다. 연방제는 미국이 사는 방식이고, 국가 연합은 유럽이 사는 방식이다. 연방제나 연합체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방식이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기독교 내 세력이 있다. 우리보다 천배쯤 많은 사람들이 지라시에 노출되어 있다. 정상적인 통일 논의 자체가 불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를 잃어버린 지 108년째 되는 해이다.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된지 73년째이고, 정상회담이 18년째이다. 이 긴 세월동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의 긴박감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회가 108년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사회를 완전히 파괴시킨다고 말했다. 유엔은 평화를 위한 단체이고, 2017년에 대북 선제 전쟁 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전쟁은 불가능하다. 2018년 2월 10일에는 김정은의 친서가 배달되었다. 이후 3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도달했다. 이 친서에는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외부의 압박과 관여의 의지를 모아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저항’ 의

지를 꺾고 ‘협력’의 의지를 살려내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해서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에는 너무 늦게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억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빨리 해야 되는 현실을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다. 바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공약이 세트트로 이어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서로 같아지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통합이 통일이다. 통일이 되었다는 것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 출신과 남한 주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핵 문제의 현실을 짚어야 한다. 전 세계의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매하다. 지구상에 15,395개의 핵탄두가 있다. 지구를 여러 번 날릴 무기를 쌓아두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인류가 최초로 핵을 사용한 것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이고, 마지막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이다. 인류는 핵을 딱 한번 쓰고서 다시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 핵을 쓴다면 국제 관계에서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다.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수는 7,200개 정도이며, 북한에서 올 수 있는 것은 10개 미만이다.

북한의 핵 때문에 아무런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1948년에 유엔총회 회의록의 원문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기록이 있다. 이런 것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에 대해 선언한다. 법에 의한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3분의 2는 남한에 살고 3분의 1은 북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선거가 치러졌다. 유엔임시위원단이 이 모든 과정을 감시했고, 합의했다.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땅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이다. 조금만 밀고 올라가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10월 17일, 점령한 북한지역에 행정관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유엔지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교를 했다. 전범국가가 수교를 하려면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다. 한반도 전체 배상액을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없었다. 일본은 절반만 주려고 했고, 일본이 이겼다. 그래서 현재 북한에 대한 배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할 때는 일본이 엄청난 양의 배상액을 물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그것이 통일인 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저 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인가? 도덕의 경계라는 것이 있다.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나의 일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식 결핍의 악순환이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의 결핍이다. 어느 교회를 가나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분은 항상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분들이 왜곡된 지식으로 악을 행하기도 한다.

결론으로, 정상적인 정치권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방해 세력이 있다. 유언비어를 기획하고 유포하기 위해 돈쓰는 곳이 있다. 이런 곳에서 메시지가 오면 답장을 하라. 점잖게 살려고 한다면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기실**

청년 세대, 평화의 온도

정재훈 (기윤실 회원)

1. 출근길 잠을 깨운 단일팀 선수의 인터뷰

매일 아침 통근버스에 올라 라디오를 듣는다. 아침뉴스를 챙겨듣고 피곤한 날은 이어폰을 꽂은 채 즐기도 한다. 뉴스를 들 때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올림픽 하긴 하는 거야?’라고 걱정할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극적이어서 더욱 즐거운 걸까? 기대는커녕 별 관심도 없었지만 큰 감동을 준 평창 평화 올림픽이 폐막을 향해가고 있을 때, 올림픽 기간 중 가장 ‘핫’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해단 후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¹⁾하는 것을 들었다.



북한 선수들은 ‘슛’을 ‘쳐넣기’라고 하고 ‘패스’는 ‘연결, 연결’한다고. 남북한 선수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고 헤어질 땐 펄펄 울며 벌써 그립다고 했다. 그렇게 훈훈한 인터뷰를 이어갈 때만 해도 나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 “단일팀을 또 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선수들이 잠시 머뭇거렸고, 필자는 이 대목에서 잠이 깼다. 불과 몇 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머뭇거리며 왜 찬성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선수는 단일팀의 의미나 취지는 좋지만 남북간에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고 종목 특성상 단일팀을 하려면 3~4년은 꾸준히 같이 연습해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는 꼭 단일팀이 아니라도 상대팀으로 좋은 경쟁자로 만나고 싶다는 어려운 속내를 밝혔다.

1)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2월27일자, 신소정, 조수지, 조미환 선수(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와의 인터뷰

내가 끈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관련 업계 종사자라서 그런지 선수들의 대답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인터뷰를 계속 듣다보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게 공식적인 팀이란 오직 국가대표팀 1개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팀, 실업팀이 없으니 당연히 국가대표선수들은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었다. 국가대표가 아니면 같이 경기를 할 상대팀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들은 당장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 선수들과 단일팀을 하기보다 차라리 상대 팀으로 만나 같이 경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올림픽기간에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올림픽 후에는 자신들이 잊혀 질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었다. 잠시나마 선수들에게 실망했던 마음이 100%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좋은걸 좋다고 하지 누가 굳이 싫다고 하겠나. 단순히 이 이유만은 아니었겠지만, 국가 대표팀 외에는 팀조차 없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는 단일팀 같은 이벤트보다는 선수로써 꾸준히 뛸 수 있는 소속팀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북한에는 6개 팀이 있다고 한다.

2.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이 듣는 말은 최근 북한의 변화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른 것 같다는 것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배급제가 무너진 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닌가! 그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하고 '자기 집'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지 않았던가!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에게 '이기적이다' '자기 밖에 모른다.'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위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낸 선진국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런 찬란한 성취의 이면에 짙은 그늘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IMF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불평등의 모순은 너무 견고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N포세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 '이생'

2) 북음과상황(2016년 6월호), [레드레터 크리스천] "북한인권 문제 해결 전 까지, '기록'을 멈출 순 없지요"

망'과 같은 말이 함께 거론될 때, 그야말로 자괴감이 든다.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직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불안한 일자리와 집값은 결혼과 출산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현실을 증명하듯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국제적인 지표(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집합지표)에 비춰 본 우리나라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삶의 질이 개인소득에 정 비례할 만큼 국가의 부채를 드러내고 있고, 사회 불평등이 심하니 인간존엄지표도 낮을 수밖에 없다. 13년째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다. 직계존속 살인비율, 노동시간, 노인 빈곤률 등 이 모든 지표에서 OECD 최하, 최악이다.³⁾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이 분단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한반도의 정세가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주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에 다소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당 장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당면한 과제가 버겁다. 분단 상황을 보고 거룩한 불만족을 느 끼는 사망자 혹은 오타쿠적 열정으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이 충만한 친구들, 나와 같은 이 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와 같은 이슈에 큰 관심을 두기 어렵다. 삶이 고단할수록 그런 외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측의 요청으로 우리 가수들이 북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제 목이 '봄이 온다.'라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의 고단한 삶에도 '봄이 오길' 고대한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충만해진다 해도, 내가 불 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살만하고 평화로울 때에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통일 준비와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통일 준비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여기' 우리 사 회를 사람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3. 평화, 슬기로운 청년들에게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슬기로운 생활을 누릴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정 착을 위해 슬기로운 청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의 고단함

3) 박명림, 중앙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중앙시평] 민주화30년: 성찰과 과제'

4) 요즘 우리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요즘 우리 업계가 들썩인다. 남북화해, 평화무 드에 따른 각종 예산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이런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것은 '통일교육/평화교육'이 제대로 (?) 되지 않은 결과라며 대목을 잡고자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우울한 정황의 좀 더 근본적인 삶의 맥락을 짚어보고 자 하는 것이다.

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⁵⁾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진다고 곧바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로울 수 있다면, 이 주제를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가? 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슈는 우리가 꿈꾸며 지켜나가야 할 이슈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초월자에게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주목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관한 것이다.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자신의 배경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또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한 분씩 있다. 그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학교에 북한에서 온 선생님이 있나요?’ 물으며 불편해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북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다니

5)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슈에 관심 갖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더 바쁘고 고되게 몰아가는 일을 할 것이다.

는 초등학교에서는 자녀를 조용히 전학시키는 사례들도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와 닿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 출신 교사에게 아이들의 수업을 맡길 수 있을까? 또는 북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종종 국제뉴스를 통해 ‘분리독립’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였던 나라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어떤 모양으로든지 체제가 통합된다거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없는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고 해도 그것은 외연상의 평화일 뿐이다. 그것은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평화를 이루려면 제도적 이슈 외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유네스코 현장의 정신처럼 평화는 국제적, 정치적 이슈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미국과 우리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폭격기를 띄우며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행한다. 궁극적으로 북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사드 미사일이 아니라고, 사랑의 원자탄뿐이라고 믿고 있지만……; 불편한 한반도 뉴스를 접할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만, 대답하기란 너무 어렵다. 슬기로운 청년들에게 평화를 위한 지혜를 구한다. **기실**



□ 전체 토의

• 소감과 질문

- 통일이 평화로 가는 수단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되었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말 폭탄을 주고받다가 평화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좋으면서도 무력감이 든다.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구체적인 실천까지 담아주셔서 감사하다. 이 사회가 굉장히 분주하고 고도의 경쟁으로 이미 피로감이 있기에 평화까지 생각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세대의 의식을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하다.
- 보여주신 김정은 사진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북한의 통일 구조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또한 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듣고 싶다.
-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 일단 새터민들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통일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남북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궁금하다.
-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답변

- 윤환철 사무총장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식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다. 이미 게임이 끝난 분들이다. 통일은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거부해 버리면 된다. 우리는 촛불을 경험한 세대이다. 안 좋은 대통령은 안 받아들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통일은 거부하면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연방제나 연합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 곧바로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을 한다면 짐이 될 것이다. 왜 곧바로 합치지 않고 경계를 두느냐? 서로 가까워지려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환자들은 의술과 시설이 좋은 남한의 병원에 입원하려고 할 것이다. 병원에 가면 번호표가 모자랄 것이다. 북한에 일자리가 있을까?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두 사회의 통합은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 후에 하는 것이다. 차이를 30% 이하로 낮춘 후에 통일하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다.

남북한의 질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졌느냐의 기준은 협력이 이루어졌느냐이다. 이 기준은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제도를 통해 불가항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의 사회이다. 역사적 협력을 말씀드렸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독립 운동가는 남한 내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역사적 협력은 끊어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협력에 관한 사항에서는 하나의 민족과 사회로 협력하되 타국으로서의 존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정재훈 회원

새터민들에게는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심리 상담을 맡길 때도 그 기관에 사전 교육을 한다. 상처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다양각색이다. 하나의 통일된 색깔로 이들을 정의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새터민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진심은 통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한다. 결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 고민하고, 큰 의미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초월자에게 맡기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이슈들에 대해 사람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포럼

[슬기로운 청년생활 2장]

“결혼과 비혼 사이”

본 원고는 2018년 7월 31일 열린 청년포럼의 발제문을 엮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 비혼 동향과 정책 현황 : “너의 비혼을 사(赦)하노라”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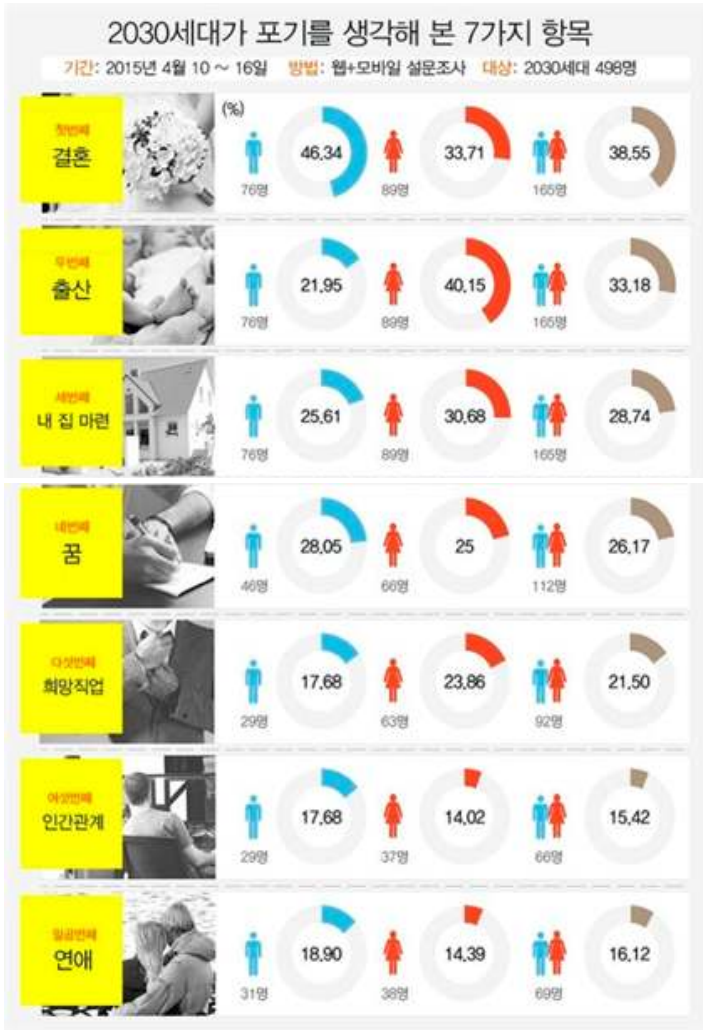
들어가며 : 한국의 청년들, 교회의 청년들

본 포럼은 결혼과 비혼 사이의 교회 청년을 조명하는 자리이다. 사실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편적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혁명적이다.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비혼’은 홍길동의 호형호제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비혼을 말하고, 나도 비혼의 현실 속에 있는데, 정작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공동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승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비혼을 비혼이라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까. 결혼하지 않은 한국 교회 청년의 현주소, 그들의 정체성은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들을 말하는 소위 N포 세대와 같다. N포 세대는 기존의 3포 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3포 세대란,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3포 세대가 처음 화자되던 2010년대 초기를 지나오며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5.4.3. 기사). 무엇이 청년들에게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한 일곱 가지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사실 청년들의 포기는 그 비자발성으로 인해 ‘포기’보다는 ‘박탈’이 적합한 단어일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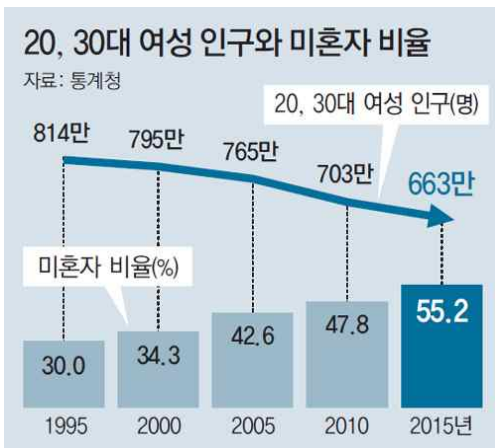




〈그림 2〉 2030세대가 포기하게 된 7가지 항목들에 대한 조사표와 성별차이. 2015년 조사 시점 이후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결혼이다. 7포 안에 포함된 결혼, 출산, 연애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크게 보면 ‘내 집 마련’도 결혼과 관련된 항목 중 하나이다. 청년 중 38.6%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이들 중 남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33.2%가 포기하겠다고 답한 출산에 대해서는 여성이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결혼을 대하는 남성의 부담과, 출산을 대하는 여성의 부담을 대변한다. 곧 남성들은 결혼에 드는 재정적 부담,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인생의 의사결정 폭이 좁아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그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과 여성혐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여성 폭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간 여성들은 은연중에 느껴왔으나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성차별과 억압에 대한 언어를 찾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이 느끼는 많은 차별과 기회의 단절이 결혼이라는 제도로의 진입, 생애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는 데 봉착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20-30대 여성 중 절반이 결혼하지 않는 현실이다. 20-30대 한국 여성 663만 명 중 55.2%가 ‘결혼하지 않음’의 상태에 놓인 현실은, 일제 강점 시 한반도 인구주택 총 조사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유사 이래 최저 수준에 놓인 비혼 여성의 수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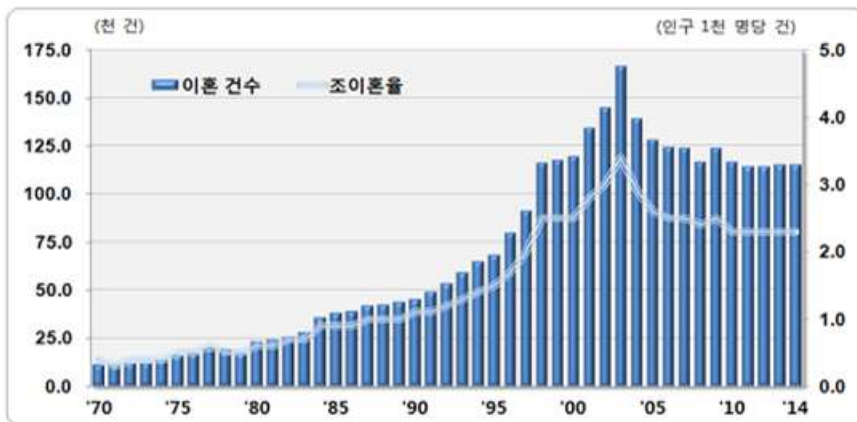
〈그림3〉 “한국의 20-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표 조사결과. 사실상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의 원인은 첫째,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의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이미 알아버린 이상 ‘예측 가능한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원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경력계발을 꾸준히 하거나 일가족(가정)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은 가부장제 관습이 남아있는 사회문화적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신·출산·양육의 생애사건을 겪은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생계부양자 정상인 성인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 격차와 분리를 전제로 한,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노동 경제적 구조이다.

청년들의 비혼을 말할 때는 미혼(未婚) 뿐 아니라 이혼(離婚)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고 수치의 이혼율을 보인다. 이혼율 자체보다 더 중요한 ‘혼인의 안정성’ 혹은 ‘결혼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조이혼율, 즉 4년 이하 이혼율이다. 20년 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했지만 2017년 혼인지속기간 구성 비율은 20년 이상과 4년 이하가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즉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있긴 하지만, 드물게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2014 혼인 이혼 통계>

<그림 4> OECD에서 조이혼율 추이가 점점 높아지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이혼한 여성과 남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한국 사회 내에 이혼 인구가 200백만 명을 넘긴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교회 내에서 이혼 경험을 가진 성인 남녀는 비가시화 되어 있다. 실패한 결혼에 대한 정치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에 가까운 도덕적 흠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에는 그대로 평판의 기제로 들어와 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우리가 듣는 정죄의 말들

이제 한국 교회 청년들을 보자. 우선 교회 내 청년층 분류 기준은 작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엄청나게 시대착오적이다. 소위 ‘학생회’라고 부르는 청소년기 교회 학교를 거치고 나면 예외 없이 교회 내 청년들은 ‘청년부’라는 일종의 유예기간에 돌입한다. 청년부를 가끔 ‘대학부’ 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다. 아무리 전 국민 대학진학률이 78%에 육박한다고 해도 매우 무성의한 작명이다.

이 청년부의 시기는 개인이 결혼을 통해서 장년부로 ‘탈출’ 혹은 ‘진급’하기 전까지는 무한정 계속된다. 결국 ‘성인이되 결혼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속한 군집이 청년부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크다면 이들은 다행히 대학부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으로 나름의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교집합을 찾아 묶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장년부로 가기 전의 일종의 모라토리움⁶⁾ 상태에 머문다.

기도, 공훈의 언어들

- 널 위해 기도할게
- 증보기도할게
-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꺼야
-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니?
- 너 혹시 비혼이나 그런 나쁜 생각하는 것 아니지?
- 요즘 애들은 결혼 안하고 그런다던데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 어서 결혼해서 교회에 큰일을 감당해야 한다
- 교인이 줄어들다, 결혼해서 자연전도에 힘써라



- 우리를 정죄하는 언어들

- 너는 기도가 필요한(부족한) 상태야
-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모자란 것
- 예비하신(있다면) 배우자를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 너가 결혼하지 않은(못한) 것은 너의 기도의 부족이다(네 탓이다)
- 너의 출산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너 역시도 그렇다)
- 결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잉여인력/ 잉여 청년이다
-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헌신은 불완전하다

<그림 5> 결혼하지 않는 청년, 우리가 듣는 공훈과 증보의 말들은 사실 각정의 탈을 쓴 정죄와 타박의 잔소리일 때가 많다. 타인의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갖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몰이해의 폭력적 언사가 많다.

결혼하지 않는 한국 교회 내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불편한 말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교회 내 청년들, 특히 중장년층 ‘전도회 분들’의 기준에서 결혼적령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나이의 청년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훈과 증보의 언사를 마주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성차별적이거나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호 간에 삼가는 언사들이다. 특히 교회 내 청년 여성의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하다.

고된 노동은 또 어떠한가.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경제를 책임지거나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존재로 취급된다. 각종 교사, 교회 관리, 반주, 찬양팀 봉사 등에 동원되기 일쑤이다. 밖에서 시간제근무 알바를 해서 용돈

6) moratorium, 유예기간 혹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과정의 정지 기간

을 벌거나 학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도 교회에서는 시급이나 일당 없이 종종걸음으로 교육부로, 찬양부로……. 오늘도 뛰어다닌다. 그렇게 해도 이들은 교회 내에서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주요 활동에 속하지 못한다. 늘 ‘청년부’라는 집단으로 존재하고 ‘수고해주는’ 봉사자와 행동대의 역할을 도맡는다.

이렇듯 막막한 현실에 결혼을 포기할 생각도 하는 청년들을 향해 교회 내 기성세대들이 던지는 결혼과 관련된 물이해의 언어들만 가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한국 사회의 비혼 상황은 젊은이들의 문화라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이요 사회가 마주한 현상에 가깝다. 폭주족이나 불법 촬영물처럼 근절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이 현상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다음의 칼럼은 ‘청년에게 꿈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열정 페이’, ‘그 나이대의 사서 하는 고생’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뭇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를 대변한다. 요즘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베이비붐 세대, 즉 산업화로 고도성장 시기를 거친 현재 한국 교회 중직자 혹은 중장년층 ‘전도회 어른들’은 현재 한국 청년현실을 모르는 채로, 이해보다는 훈계를 앞세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선의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오늘의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외치고 싶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비혼이 죄라면-혹은 죄 같이 여겨진다면- 그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이다.

“고용난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꿈이 소박해지고 성취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객관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는 꿈을 응원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년과 부모 모두 나이가 먹지만, 청년은 어른 되기에 실패한다. 이 불 밝은 위험하다는 지방대생들은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향한다.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오는 학생도 적지 않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 아이 키우는 자녀를 기대했던 부모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취업은 사회문제가기도 하지만 가족문제이기도 하다. 입시전쟁에서 취업전쟁으로 주제가 바뀌었을 뿐이다. 고령화도 문제지만, 사회적 역할 없이 30대가 되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분명 중대한 문제다. 세대문제만도 아니다. 여력이 되는 부모의 보살핌과 내버려두는 부모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행사되는 영향력 차이도 더 커졌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그렇다. 경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을 가진 청년들과 나이만 먹으면서 기준점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활력 격차는 수십 년 동안 더 커졌다.”⁷⁾

비혼의 정치학, 비혼의 경제학

2007년만 해도 당시 36세 전문직여성이 비혼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소수자성(minority)을 가진 예외적 존재로 언론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시기 한국 사회 역시 가부장제가 극심했고, 여성들의 삶은 억압적이었으며 많은 기업에서 채용 차별과 고용 상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은 육아휴직 강제화, 블라인드 채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이 더 일반적이 되었고, 당시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지의 걱정거리가 될지언정 언론에서 개인의 예외성을 다룰 소재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결혼만 하면 모두 행복한가요?”



‘비혼’ 선택한 30대 중반 직장인 이미나씨

[19돌 창간특집] 신 소수자 열전 - ‘비혼’ 선택한 30대 중반 직장인 이미나씨

19. 창간특집 이미나(36)씨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차례 청혼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공손히 거절했다. 이씨는 “청혼해온 선배나 친구와 관계가 꺾그러워질 것을 걱정도 했지만, 나만의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결혼을 금기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닌 것처럼, 결혼을 택하지 않으면 꼭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을 거절한다.

그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생 부부를 보면서도 부럽다는 느낌이 없다”며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럽다’, ‘안 부럽다’ 등의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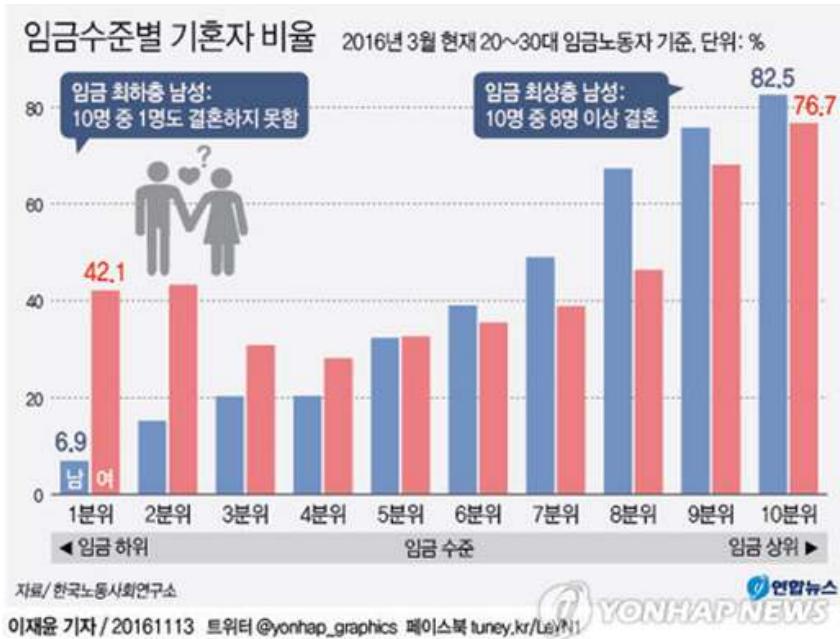
〈그림 6〉 불과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36세 ‘미혼’ 여성은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주목받고 신문지상에 소개될 정도의 별종, 더 나아가 소수자로 분류되었다.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10년간 진행된 사회적·경제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갈래기’라 할 수 있다. 유전기혼 무전비혼, 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고임금, 정규직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결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⁸⁾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 8년간 지속된 기득권 중심의 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은 세대의 빈곤화를 부추겼다. 청년들은 당장 눈앞의 직접적인 생존과, 손에 잡히지 않는 흑시 있을지도 모르는 연애·결혼의 행복 사이에서

7) 출처: “[양승훈의 공문공작소] 청년에게 ‘가족 밖 세상’을 허하라” 2018.07.25. 경향신문 사설.

8) 물론 여성의 경우 U자형의 특정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책무를 지고 여성이 전업주부로 남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생존을 선택한다. 철이 없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고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보면, 고임금-정규직 남성의 경우 기혼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임금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U자 곡선을 보인다.

청년 여성 : 우리의 '자매님들'

특히 한국 사회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한 경제적 선택 제한 뿐 아니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상승, 높아진 교육수준, 개선된 성평등 인식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가는 트리구조와 알고리즘에는 더 많은 변수가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청년 여성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 처녀', '노산', '시집을 못/안간' 등의 각종 결혼 압박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교회 곳곳에 자신의 노동을 무보수로 제공하고, 교세 확장에 기도로 물질로 전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다. 교회 내 여

성의 수가 많고, 교회 내 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이 중고령 기혼여성이라고 해도, 이들이 속한 조직의 지배논리를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남성-장로와 목사, 감독, 노회장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여성 대표성의 부재는 한국 교회 여성목회자 비율이 모든 교단을 통틀어 평균 10%도 안 된다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7〉 한국 교회 남성신도-여성신도 비율과 남성목회자-여성목회자 비율

출산하라고 결혼을 권하는 사회

지난 2018년 6월 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통해 초고령화사회, 인구절벽 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은 기존의 단순한 일가족양립 강화를 통한 출산장려의 틀에서 벗어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의 지향점은 ‘삶의 질 개선’이었다. 물론 기존의 정책에 비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 포함된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 수요층을 제대로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출산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망이 결여되어 있거나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복지혜택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전히 구체적 실행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 즉, 조손가족 내 아동, 비혈연 양육자 거주 아동 등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정상가족 프레임’을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기혼 상태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 아이를 낳았으나 결혼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 현재 삶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된 정책, 현재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계획이(여유가) 있는 예비 부모에게 집중된 정책의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여성이 아이를 덜 낳는다.’라며 여성에게 책무를 돌리는 듯한 ‘저출산’에서, 고령화가 가지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용어로 ‘저출생(low-birth rate)’으로 전환하자는 시도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지난 2016년, 여성들 뿐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수준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름과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교회를 꿈꾼다.

한국 사회 청년이 겪는 현실 문제는 교회 내 청년들의 소외와 함께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의 치유나 일회성의 감정적 해소가 아니다. 이미 사회에 많은 정서적 치유 콘텐츠가 넘쳐난다. 사실 교회 조직은 평화만큼이나 정치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동적인 공동체이지 않은가.

때문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상태이든 선언이든) 비혼 청년들을 교회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는 비혼, 페미니즘, 쿼어, 난민

등 조금의 '다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수가 생전에 보여준 엄청난 전복과 경계 허물기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단일성과 정상성에 갇힌 한국 교회에서 비혼이라는 또 하나의 다름은 발붙일 곳이 있을 리 없다.

다음은 한국 교회가 가진 '약함에 대한 경멸'이다. 이 경멸과 강함에 대한 동경은 약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십일조를 통해 부자가 된 록펠러를 숭배하면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지배가 긴 세월 동안 세계금융경제를 얼마나 기형적으로 왜곡시켜왔는지, 록펠러의 축재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거대 자본가들의 본보기가 되었는지는 보통 설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교회 내에서 비혼 청년은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결혼을 중용하는 중고령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사회적 약한 존재가 되는 청년을 향한 걱정이 분명 존재한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정상가족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상태로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약한 존재'가 되어 교회 청년들이 주저앉을까 걱정되는 것이라.

또한 청년들은 그런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청년 개인은 자신의 약함과 다름을 솔직하게 만나야 한다. 1) 결혼이라는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사회적 불안정을 끌어안을 만큼 조건이 되지 못한 약한 자신, 2)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교회 내 의사결정과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해야 한다. 또한 1) 결혼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다름, 2)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거나 수용된 다른 또래 내 기혼 청년과 자신이 다름을 마주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공정의 서사로 이야기하고 사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안팎의 다름과 약함에 깨어있어야 한다. 예수는 회당에 머물지 않았고, 거리에 나섰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죄, 상처, 가난과 마주했다. 우리 안의 약자를 인정하고 허락된 존재의 폭을 넓히려면,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기꺼이 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강함이,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의 약함과 다름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교회에서 비혼을 말한다는 것

플 짝 (믿는페미 활동가)

1. 나의 비혼 이야기

골드미스, 독신주의. 초등학교생인 나는 신문에
서 발견한 이 단어들에 가슴이 설렘다. 그 때
부터 가족들과 친구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
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예요." "나
는 독신주의자예요."라고 선포하며 다녔다. 그
리고 매번 돌아오는 반응을 똑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나의 선택에도 여
전히 동일한 반응이 돌아온다.



이런 반응에 과거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꼭 결혼하지 않아서 내 선택을 증명하겠어.’라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제 나이면 지금 결혼해도 먼저 하는 결혼도, 빨리하는 결혼도 아니죠.”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씁쓸하다. 10년, 아니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동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선택은 왜 ‘선택’이 아니라 어린 날의 치기 혹은 ‘아직 뭘 모르는’ 미성숙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내가 어린 시절 독신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모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어딘가 족쇄처럼 느껴졌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독신으로 살기를 바랐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가족제도에 동의할 수 없어서이고, 가족 정책이 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원가족에 편입되는 방식이 불편하다. 나와 애인의 관계를 뭐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무언가로써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가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교회에서 비혼을 말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런 나의 선택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나의 대답은 ‘아니요’이다. 나는 아직 교회가 비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의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한국의 많은 개교회들은 가족 구성원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모든 가족이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교회는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성역할을 이상적인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물론 교회의 가족 중심주의는 교회 구성원들의 단합과 교회 조직 운영에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가족’의 모습이 ‘여-남의 결합(결혼)’을 통한 핵가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가족주의를 넘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다고 여겨진다.

교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교회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성인 여자와 남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식이라는 ‘핵가족’이 정상으로 간주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비정상이 된다. 이와 같은 정상/비정상의 구도에서 비혼을 포함한 동거 가구, 무자녀 가구, 이혼 및 재혼 가구, 조손 가구, 동성 가구, 장애 가구, 다문화 가구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해체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부모와 자식, 여자와 남자의 결합만을 ‘정상’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은 정상가족을 꾸리지 못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 여겨져 의심과 걱정을 받는 동시에 ‘곧’ 정상가족의 궤도에 편입될 이들로 여겨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결혼이 정상이라는 응시가 반영된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전 생애를 걸친 선택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태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6%이고⁹⁾, 2010년 24.4%, 2000년 16.3%로¹⁰⁾

9) 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 시도별 1인가구.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매년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이 가족관과 비혼에 대한 시선이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선택하는 방식과는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혼을 포용할 수 없는 교회 구조

위에서 언급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는 가장 큰 방식은 이들이 속해서 활동할 공동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청년부’는 보통 20살 ~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청년의 규모에 따라서 1청년부, 2청년부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도 한다. 청년부에서 보내는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고 인식되는 동시에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떠나줘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20대 후반, 30대의 자매들은 ‘얼른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줘야 다른 동생들도 (시집)가지 않겠느냐며 추궁을 받기도 하고, 청년부 탈출을 위해 청년부 담당 사역자부터 장로까지 발 벗고 나서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회의 말처럼 청년부가 ‘떠나야 하는 곳’이라면 떠나지 않은 이들을 어디로 가야할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혹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교회에서 갈 곳을 잃는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청년’이지만, 자신보다 20살도 어린 동생들과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거나 더러는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간혹 청년부 생활을 하지 않고 성가대 등의 다른 부서 활동에 집중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역시도 교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방향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비단 비혼을 선택한 청년들만이 아니다. 자녀들을 매개로 교회 내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가 없는 무자녀 부부들 역시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가 애매해진다. 한 지인은 아이가 없는 자신들은 교회에서 ‘뿔 떠있다’고 표현하며 교회의 구조가 얼마나 천편일률적인지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비혼과 무자녀 부부의 예만 들었지만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10)이성은 (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7(2), 73-112.

나는 이러한 교회 구조적 ‘구멍’은 교회가 선택하는 ‘보편’의 언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3말4초’나¹¹⁾ 25살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라며 20대 초반의 연애는 제한하고, 동시에 때가 되었다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해 소개팅을 빙자한 연합 수련회를 열어 사랑의 오작교가 되는 모습¹²⁾을 보며 ‘보편’의 언어가 얼마나 통제적인지 깨닫는다. 나는 교회의 이런 적극성이 더 많은 이들을 구조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휘되기를 바란다.



3. 교회와 비혼이 만날 수 없을까?

앞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내가 왜 교회에서 비혼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교회와 비혼은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비혼을 선택한 이들은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말씀에 출산으로 화답할 수 없으니 교회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인가? 나는 교회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해야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결혼을 장려해야한다.’는 태도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도, 함께 고민할 수도 없을 것이다.

11) 대학교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가 연애를 시작하기 좋다는 선교 단체 은어.

12) 장근지 (2018). 한국교회 내 여성평신도의 젠더수행성에 관한 연구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

내가 섬기고 있던 고등부의 한 학생이 “폴짝뿔이 제가 청년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청년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것을 옆에서 들은 한 집사님은 “그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 얼른 청년부를 떠나기를 기도해야한다.”며 학생을 나무랐다.

하지만 비혼은 저주가 아니다. 비혼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선택이다. 그렇기에 선택의 이유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결혼 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교회에서 비혼은 납작하다. 비혼을 선택한 이가 왜 비혼을 선택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워진다. 그저 이상 행동으로 치부될 뿐이다.

내 주변에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을 보면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은 결혼을 하는 순간 사모로 치환되어 자신의 사역을 펼쳐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비혼을 고민하고, 나처럼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동의할 수 없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때를 놓쳐서 비혼이 되어있기도 하고,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제를 해체하기 위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1.8%의 청년들은 비혼을 결정했거나 결혼을 고민한다고 대답했다(비혼 결정-6.4%, 결혼 고민-25.4%). 그리고 이들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되풀이하기 싫어서”(29.8%), “현재 생활에 만족해서”(25.4%),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9.4%), “나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서”(7.5%), “육아 등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어서”(7.5%), “집 마련 등 결혼준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1.5%) 비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¹³⁾

나는 교회에서 더 다양한 비혼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웅당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혼을 비혼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어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자 교회가 비혼을 포함을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포용하고 환대하는 성경적 원리로 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존재와 존재로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 되는, 비혼이 비혼 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 **그실**

13) 국민일보. 2018. 기독교인 미혼남녀 10명 중 7명 “결혼할 거예요”
크리스천 미혼남녀 비혼(非婚)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4472&code=231111111&cp=nv>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포럼

[슬기로운 청년생활 3장]

“우리가 꿈꾸는 노동”

본 원고는 2018년 11월 2일 열린 청년포럼의 발제문을 엮은 것입니다.

노동의 신학과 노동윤리 - 일에 대한 신학적 관점 -

김동춘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I. 노동의 일반적 의미

1. 일(노동)이란 무엇인가?

- 1) 넓은 의미에서 일(노동)이란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인간의 '활동'(活動)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살아있음을 뜻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 2)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은 생계수단으로서 직업 활동의 일환으로 생산 활동을 벌이면
서 생산물의 결과에 따라 임금을 받거나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노동의 3가지 차원

생물학적 차원: 호구지책(糊口之策), 의식주(衣食住)의 해결책으로서 노동
노동 사회적 차원: 인간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노동
문화적 차원: 노동을 통한 창조적 행위, 생산물을 통한 성취감과 존재감

1). 생존과 생계로서 노동

- 노동은 일차적으로 생존(生存)과 생계(生界)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족 부양,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수단이다. 노동은 생계수단이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이고, 누구나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노동은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일터(일자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밥 그릇 싸움인가 : 권리로서 노동인가, 경쟁으로서 노동인가?
- 생계형 노동은 허구이다 : 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돈을 벌기위해 일한다.

2). 자아실현의 장(場)으로서 노동

- 노동은 단지 생존과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성을 발현하는 통로이다. 일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양, 자질,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다. 인간은 노동의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 행복감을 주는 도구이고, 자기실현이다.

노동의 기쁨과 보람은 창조적 노동일 때, 가장 최고의 보상이요, 기쁨이 된다.

- 생계수단으로 출발한 노동이 자기실현의 노동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시작한 노동이 생계노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생계 노동은 의미 없는 노동이고, 창조적 노동은 항상 본래적인 노동만이 아니다.

3). 사회적 활동으로서 노동

- 노동하는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다. 노동은 직장에서 동료 인간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시민, 민족, 국가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 노동이 수행되는 인간의 일터(노동의 무대)는 그의 사회적 활동공간이며, 상하관계와 수평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연대, 친교,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다.
- 인간은 사회적 인격을 보유하며 삶을 영위한다. 명함에 찍힌 직책(職責, status)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감의 표현이다. 노동하는 인간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 : 비정규직의 비애.

II. 노동의 신학적 의미

1. 노동은 인간에게 부여된 위임(commission) 혹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다.

- 1).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의 창조세계를 경작하고(cultivate), 돌보고(care), 관리하고, 경영하도록(management) 위임하셨다(창 2:5-8, 15).
-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은 가정(familia 생육과 번성), 국가(politica 지배와 다스림), 경제(economica 노동과 경영)다.
- 3). 창1:28의 ‘땅의 지배’(dominium terrae)¹⁴⁾는 다른 피조물을 폭군처럼 지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임금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이 땅의 재화(財貨)를 일구고, 돌

14)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땅의 지배(경작, 개발, 창조행위)를 통해 문화적 행위에 참여하며, 자연물을 관리, 경영하는 주체가 된다. 동시에 인간은 그들을 ‘동료 피조물’로 대해야 한다.

- 4). 노동은 인간이 자연을 경작하고 다스림을 통해 역사와 사회, 즉 문화를 이루어나가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노동의 위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에 개입하라는 요구이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행위이다.
- 5).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은총에 따라 자연(nature)과 역사(history)안에서 다양한 노동행위(경작, 개발, 변화, 보존)를 통해 하나님의 위임명령을 수행한다.
- 그러나 문화명령안에 담긴 근대의 주체 중심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6). 일(노동)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일부이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일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일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2. 노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다.

- 1).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자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존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인간의 삶과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의 직무를 (대표적, 대행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 3). 인간의 노동은 동료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획과 구상, 의도, 실행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리하여 정의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3. 교정되어야 할 노동에 대한 신학적 오해

1). 노동은 타락으로 인해 발생된 형벌과 저주가 아니다.

- a). 창1:28에서 바라본 노동은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위임된 것이다. 노동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래 상태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 b). 창3장에서 바라보는 노동은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저주라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하면 일이 축복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타락으로 노동은 생존을 위한 고역이 되고, 비인간적 경쟁과 착취의 결과물이 되고 만다. 이제 노동은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아니라 생계와 보수(報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억지스런 의무로만 남게 된다 : 출산, 육아.

천국은 이런 형벌적 노동으로부터의 짐을 주는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다.

- c). 노동은 죄의 저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은총아래 있어 죄의 억제와 잠재력의 발현(창조적 노동)을 통해 신적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전5:18).

2).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working God)이다.

- 노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부이다.

6일간의 창조사역은 ‘수고로운 노동’이며, ‘노동적 활동’이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노동없이 이루어진 비활동적 창조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의 신 개념이다. 무(無)운동적, 비(非)활동적 신관은 성경적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적이며,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에 근거한 존재론적 신관이다. 만일 기독교가 말하는 신적 본질에서 활동성과 운동성을 제거하고 관조(觀

照)와 무감정(無感情apathia)의 신 개념이 강조된다면, 이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바, 인간의 역사와 현실 속에 참여하고, 개입하시며, 활동하시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개념이 배제될 것이다.

- 영원안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최초의 모습은 '창조적 일'(creational work)이다.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기뻐한다.
- 6일간의 창조활동 후 쉬을 가지셨다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증한다(창2:2-3).

3). 예수 그리스도와 노동 :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현설적(docetic) 주님이 아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실 뿐 아니라 인간적 조건을 취하시고, 노동하는 인간으로 사셨다.

(1). 일하시는 예수님 :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

노동자 예수 :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막6:3).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하셨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쉬셨다.

(2). 일하는 자들의 쉬을 보장하시는 예수님¹⁵⁾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겨를도 없음이라"(막6:7-13, 막6:30-31). 예수님은 노동 착취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의 쉬을 보장하신다.

4). 영육/성속 이원론은 노동 혐오적 신앙인을 조장한다.

a) 안식일과 노동: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유대교 종교권력자들은 안식일의 형식적 준수에 초점을 맞춰 안식일의 본래 취지인 노동하는 인간의 인권과 사회보장법적 본질을 곡해하여 노동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보다 인간 보호가 먼저라는 혁명적 발상을 제시하여 안식일 노동을 통해 이웃에게 선을 발휘하셨다. 노동 없는 안식일이 인간을 더욱 비인간화한다면 잘못이다. 노동이란 그 행위를 통해 이웃에게 선을 제공하는 행위라야 한다.

15)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5-30). 이 본문을 노동신학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노동의 굴레와 착취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와 인식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이다.

- b). 묵상, 예배, 금욕을 강조하고, 일을 멀리하려는 종교인들: 거룩한 예배자들은 거룩한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 말씀 듣는 마리아는 **관상하는 삶(vita contemplativa, 기도, 묵상, 예배)**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대받고, 부엌에서 음식준비와 설거지하며 손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활동하는 삶(vita activa, 노동, 일, 행위)**을 대표하는 열등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전통에서 인식되었다.¹⁶⁾
 - **피로사회**는 근대적 개발과 성장이데올로기, 직선적 시간관으로부터 휴식과 멈춤, 명상적 삶을 말하려는 것.
 -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노동하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
 - 목회자, 신부, 수도원의 생활리듬과 매일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직업인의 삶은 다르다!
 - 선교사 바울의 노동원칙: 노동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복음전파에 힘씀(행18:2-3)¹⁷⁾.
 - 성경인물들은 대부분 종교적 관상가(觀想家)들이 아니라 당대의 도시와 문화의 중심지, 국가의 정치무대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이었다.
 -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 명상과 노동의 베네딕트회(Benedictine Order) 의 규칙.

4. 노동과 소명: 직업의 도구로서 노동

1). 루터의 직업윤리

- (1). 소명(Beruf, vocatio): 부르심의 이층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직업 소명설

“당신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일치하는 이곳 땅위에서의 소명이라 여기며 행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일을 거

16)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8,10).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여...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3:12)

17)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행18:2-3)

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위와 일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종심과 일의 원천이라 할 말씀과 신앙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지위와 삶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생활을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로 보이는 것 같고 ... 반면에 아녀자가 요리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의 가사 노동은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거기에 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일은 수도자들이 금욕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수도자들의 (자기 공로적인)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사 노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 이다”(루터 선집. V. 102)

(2). 성직에로의 부르심을 직업소명으로 전환함.

- 종교영역에 제한된 소명을 세속 직업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부르심의 성스러움의 의미를 세속화시켰을 뿐 아니라 세속 직업으로의 활동을 신적 부르심으로 간주함으로써 직업의 성스러움의 의미를 덧입혔다. 이것이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려내심을 받았으며, 동시에 세상 속으로 말과 행위를 통한 증언의 삶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 루터의 한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전7:20). 현재의 직업에만 소명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거나 현존하는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영구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 개개인이 마치 어떤 특정 직업인으로 부르셨다는 오해를 제공한다. 특정 직업에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 않고, 주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 직업의 교체: 요셉의 직업 변천: 목동-노예-가정 노예-가정 청지기-모범죄수-현명한 해몽가-지략이 뛰어난 경영자, 곡물중개인(무역업자)-입국관리인-위기상황 지략가-토지 매매 중개인.

2). 칼빈의 직업윤리

-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soli Deo gloria).
- 세계내적 금욕과 직업윤리: 직업은 영혼의 수련도장이고 종말론적 결산의 태도로 살아가게 한다. 막스 베버의 노동윤리

III. 노동의 사회적 문제

1. 거래(교환)로서 노동

- 1). 노동의 공간은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을 요구하는 사람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노동력(육체노동, 기술노동, 지식노동, 감정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자본(capital)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사들이며 생산 활동의 결과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기업주)로 구분된다.
- 2). 노동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본없는 인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하여 (그에 상응하는)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임금을 제공한다.
- 3). 자본의 시장과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자본가의 임금(자본의 투자)과 노동자의 노동력의 교환과 거래행위는 냉엄하게 이루어진다. : 백지수표, 로또의 허구

2. 노동과 물화(物化), 노동과 소외(Entfremdung)

- 1). 여기서 노동하는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그의 노동력과 임금능력에 의해 결정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힘 당하고 인간은 물화(物化)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하는 인간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는 노동력, 노동의 결과물, 노동의 확장성 등 기능성이 상품으로 평가되어 인간성이 물화된 존재로 전락한다(스카우트, 연봉, 밀어내기). 우리는 육체노동자들(블루칼라)이 인력시장에서 개인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무직, 전문직, 지식노동자(화이트칼라)에게는 노동의 시장 거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시(錯視)이다.
- 2). 노동과 소외 : a). 노동의 성과로부터 소외. b). 자기로부터의 소외, c).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의 소외는 노동과정이 자본가적 생산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K. Marx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표시되는 상품세계에서의 소외와,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것, 노동이 바로 사용가치가 되어버리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 나타는 소외를 문제시한다.

- 3). 노동의 존엄성과 인간성 : 노동은 그 결과에 따라 화폐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나 생산도구로, 그리하여 물질적 가치를 지닌 노동력으로 환산하는 물질주의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노동이 인간보다 우선되지 말아야 한다. 노동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3. 착취와 억압으로서 노동

- 1). 모든 자본가는 최소한의 자본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노동 가치를 얻으려 하고, 노동자는 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많은 임금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본가는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다. 자본과 노동 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수평관계는 불가능하며, 여기에 갑을관계,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을수록, 노동자의 인권이 확보되지 않을수록 자본가와 노동자의 갑을관계는 공정거래가 아니라 약탈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 생산과정에서 노동은 주요 동인(動因)이지만, 생산수단의 총합인 자본은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일 뿐이다.(카톨릭사회교리, 223).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로부터 상호 보완관계로: “자본은 노동 없이 있을 수 없고, 노동은 자본 없이 있을 수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224).

2). 기업주의 횡포가 자본의 힘으로 불법적으로 표출된다. 노동자에게 굴종을 요구하며, 승진, 직위보존에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회사는 공정한 이성적인 합법칙에 의해 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주 앞에서 굽신거리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사원들 간의 경쟁유발, 굴종적 업무수행을 요구하게 되며, 사원과 기업주간의 공동체적 삶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 영혼을 팔아넘긴 기계적 노동 인간을 양산한다.

3). 노동현실에서 희생양 메커니즘

회사 공동체를 위해 폭력적인 희생, 강요된 희생을 요구한다(부당한 요구에 침묵, 굴종을 요구한다. 회사를 위해 감봉, 면직, 퇴직을 요구한다).

소위 봉사, 섬김,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과 공동체에서 노동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만을 빨아먹는 은밀한 노동수탈이 진행되고 있다.

- 교회 사역자, 선교단체, 기독교 NGO 간사

IV. 직업과 기업에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

1. 노동관에 대한 편향된 관점은 교정되어야 한다.

1). 자본가 중심의 노동관

자본가, 기업주, 경영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노동관이 있다. 이 관점은 주로 파이를 키워야 많이 나눌 수 있다. 회사가 무너지면 회사원도 죽는다. 사익적(社益的) 입장을 대변한다. 회사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린다?’(이건희) 그러나 삼성의 최대 이익결산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특별임금과 보너스 지급 등으로 그들만의 자축이 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 관점은 특정한 소수에게 부를 집중하도록 만들며, 빈부격차를 몰고 오게 한다. 한 사회의 소수 특권층만이 배불리 먹고 행복을 누리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다수 노동자들은 빈곤과 소외가 커져간다면,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다.

미국적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회사는 당연히 사업주의 개인 소유이므로 그의 이익창출에 집중한다고 사고한다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사고는 회사, 노동자의 연대성, 공평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에서는 사업주의 사익보다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사고한다. 사회형성에서 특정 개인의 자본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중시하므로 자본가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북유럽은 개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노후와 은퇴자, 설사 실업자가 되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2). 청지기적 노동관

청지기 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노동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제시한다. 요셉은 청지기적 노동자의 표상이다. 청지기 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의 신실성을 요구한다. 바울은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노예계급사회의 땅에서 자행되는 지배와 억압의 주종관계를 넘어서서 ‘혁명적 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행위의 최종적인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노동자로 살 것을 교훈한다.

그러나 청지기 노동관은 한계가 있다. 이 윤리관은 마치 인간이 노동환경에서 상당한 자유의 여백이 주어진 것처럼, 자율성과 선택의 융통성이 있는 듯 한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노동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람들, 자원들, 환경, 노동의 여건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여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자극을 주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듯이 일하도록 도전을 준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노동관은 주어진 노동환경을 탓하고, 그런 환경의 악조건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비판의식과 냉소적인 태도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3). 노동자 권익보호주의는 항상 기업과 적대적이어야 하는가?

- 갈등주의 노동관 : 노동세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과 갈등관계로 설정하여 자본가를 착취적인 인간으로, 노동자를 억압당하는 희생물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노동세계 안에 내재된 계급적 갈등, 착취와 억압의 구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 기업가, 경영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양자 간 협력과 연대적 관계모델이 필요하다.
- 기업은 단지 소유주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익(私益)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국가와 함께 기업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공적인 기관이다. 기업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나라의 외적 기관이다.

2.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의 기초적인 문제

1). 인권의 차원에서 노동윤리가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시혜적(施惠的) 방식이나 구호주의적(救護主義的) 방식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의 인권과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보장, 시급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성경의 관점은 가난한 자, 즉 일용 노동자들(품군)에게 정당한 임금을 체납하거나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한다(신24:15;창31:41;약5:1-5)¹⁸). 노동자는 성경계시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다. 출애굽(Exodus)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노동자에 대한 바른 대우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며, 권리의 문제이다.

2).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오도된 처방

- 목회주의적 처방 : 당신의 고통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설교조의 처방은 자칫 돌팔이 의사의 처방전이 될 수 있다.
- 도덕주의적 처방 : 이런 사태를 개인의 게으름이나 불성실만으로 돌리는 것.
- 사회분석적 접근 : 관찰/분석-해석-실천적 방법

3). 노동자의 노동윤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동의 자리에서 “주께 하듯” 할 것을 요구한다(골3:22-4:1). 달란트 비유 등은 노동자의 성실함을 강조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말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행해야 할 권고를 주고 있다.

4). 그리스도인 기업주들(CEO)의 바른 태도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업은 교회가 아니며, 회사는 예배당이 아니다. 예배당이 기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기업(회사)이 또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영역주권론 sphere sovereignty).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창출과 그로 인한 인간 복지의 증대에 기여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부르심이 있다.

5). 노동과 쉼(안식)

노동 이후 쉼은 인간이 노동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굴레로부터 인간 해방을 외치는 자유의 선포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예배와 인권보호의 두 측면이 있다. 쉼을 주지 않는 노동은 노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형벌과 저주가 되게 한다.

18) 그 품삯을 당일예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신24:15);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번이나 변역 하였나이대(창31:41).

6). 대안적 노동사회의 창출을 모색하자.

약자들이 노동의 착취와 억눌림으로부터 신음하지 않도록, 노동하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인간화된 노동구조를 대항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시장경제

정리

노동 : 노동이 무엇인가?

- 1). 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생계에 필요한 수단이다.
- 2). 노동은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구차하게 구걸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게으른 삶과 그로 인한 빈곤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3). 노동은 일정한 부를 생성하게 하게 한다. 그리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 노동은 선을 발휘하는 적극적 방식이다(엡4:28).
- 4). 노동은 인간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통로이다.
- 5). 노동은 직업, 즉 일자리의 도구이다.
- 6). 노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편이다(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10:31).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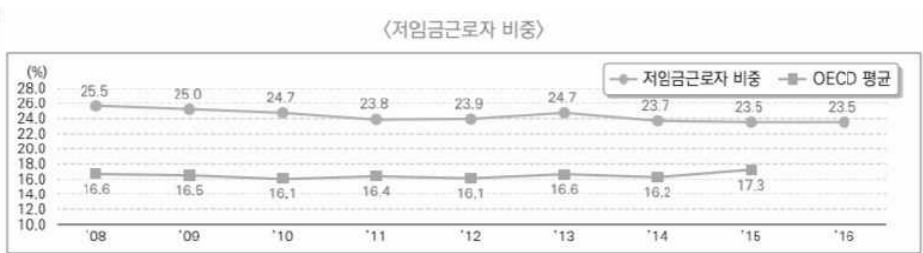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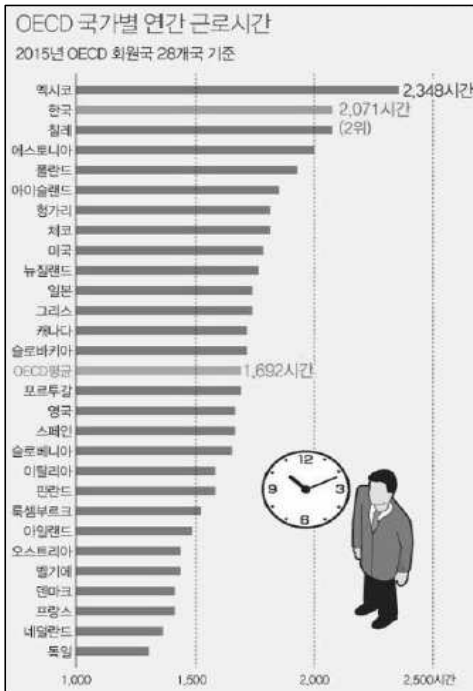
청년노동의 오늘과 내일

나현우 기획팀장 (청년유니온)

들어가며 : 당신의 노동의 오늘은?

1. 청년의 오늘, 한국 사회의 노동

1)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저임금근로자비중	25.5	25.0	24.7	23.8	23.9	24.7	23.7	23.5	23.5
OECD 평균	16.6	16.5	16.1	16.4	16.1	16.6	16.2	17.3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중상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

2) 열악한 노동인권 현실

- 국가별 '세계노동권리지수' <출처:국제노동조합총연맹>
- 세계 139개국 97개 평가항목 조사 결과
- 한국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3)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음.

4)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대체 왜?

- 경제 : 세계경제위기와 장기 저성장
- 산업 :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
- 고용 : 노동시장 이중 구조 : 외부-내부
- 기업 : 정경유착, 지대추구, 상속국가
- 기술 : 고용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
- 정치 : 민의가 반영되지 어려운 통치(정부)체제 및 선거제도

2. 청년 실업, '못 난 개인'이 아닌 '못 된 시스템'의 문제

1) 청년 실업률 10.5% (통계청, 2018)

2) 9급공무원 경쟁률 40.9 : 1 , 300인 이상 대기업 경쟁률 38.5 : 1

3) 청년들의 공공, 대기업 '선호'는 자신을 위한 당연한 선택?

4)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닌 일자리 전반의 질 향상이 필요



3. 일터의 권력불균형 : 저당잡힌 미래

1) 구의역 사고, 그 후 2년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인사건
-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 넷마블 : 2016년 직원 4명 사망, 임금체불, 법 한도 근로시간 초과
- tvN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 하루 20시간의 노동을 폭언과 폭력 속에 견디는 청춘



2) 남성 중심의 기성사회

- 만연한 성희롱
- 직장 내 '위계'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일수록 높아지는 성희롱 피해

3) 열정페이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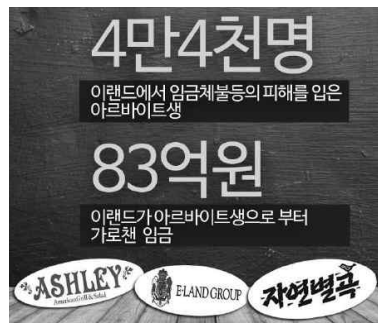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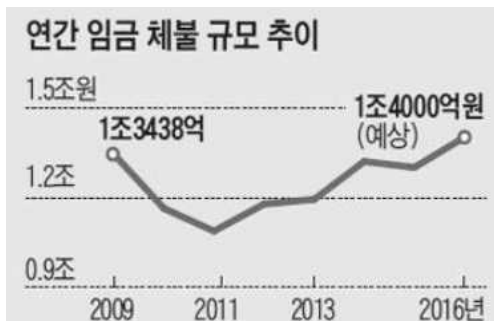
열정이 있다 \

재능이 있다 →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

재주가 있다 /

- 아무리 야근을 해도 받는 수당은 그대로?

포괄임금제 : 일정한 초과근무를 미리 가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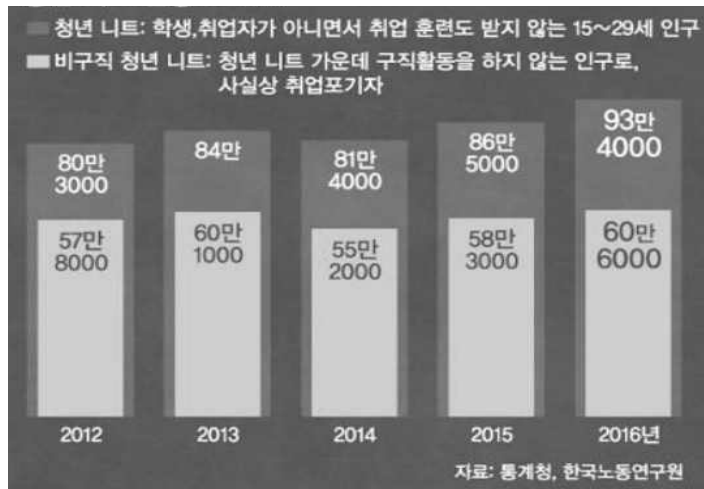


4) 일터에서의 청년노동 문제

-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 + 청년이라서 겪는 불합리함 (기성사회 진입, 위계 아래)

4. 사회 안전망 부족 :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 1) 제 3의 선택, 니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2) 청년의 선택지 : 대기업, 공공 / 문지마 취업 / 아몰랑(비구직 니트족)



3) 생애주기? 그게 뭐임?

미혼기 -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학령기 - 자녀성년기 - 자녀 독립 및 은퇴

- 현실은? 학자금 대출 - 구직난 - 실직 위험 - 전월세난

4) 안은 전쟁터, 밖은 지옥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 좋은 일자리(공공, 대기업)를 향한 경쟁 심화
 -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 (문지마 취업)
 -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것, 니트
- ☞ 선택이 아닌 특권이 된 생애 주기에 따른 삶

5. 청년의 내일 : “광장 밖의 청년” 목소리를 내다.

1) 조성주 정의당 대표 출마 선언문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안주하고 서로 다투는 사이에 민주주의 광장은 좁아졌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광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바로 공과 금과 집세를 고이 놓아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세 모녀이고, 쌀과 김치가 있으면 부탁한다는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젊은 작가이며, 수십번의 취업 실패에 절망하며 눈을 감아야 했던 청년입니다.”

2) 청년 유니온 창립 선언문 - 청년이 스스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겠다.

“청년유니온의 창립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여내기 위한 것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차이를 넘어 청년들이 연대하고 단결하기 위함이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단결을 통해 청년노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나아가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나가며 : 다시, 당신의 노동의 오늘로

“네 잘못이 아니야” 기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윤실 주요 운동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2018년에는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표어로 정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세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794-6200 (김현아 팀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와 오른쪽 QR코드에 접속하여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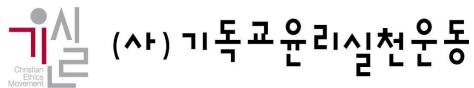
후원회원가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www.cemk.org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용지(양코르지)에 인쇄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한강로1가, 세대빌딩)
www.cemk.org 02-794-6200 cemk@hanmail.net